

동반입대 인기 쑥쑥... 실제 입영은 '바늘구멍'

“친구와 군생활” 선호도 높아... 동반 입대자 찾기 카페도

올해 전국적 경쟁률 14대 1 치열... 입대 재수·삼수생도

올해 군 입대를 계획 중인 대학생 김모(24)씨. 그는 또래보다 뒤늦은 군생활이 막막했지만 동반입대를 결심한 후 달라졌다. 친구와 함께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군 입대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동반입대 신청을 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동반입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률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동반입대는 일반병과 달리 조기 입대가 가능해, 지원자가 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나이 때문에 사들러 군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두 달 안에 군입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병 지원자는 다음달 입영 신청을 할 경우 빨라내 12월이나 입영이 가능하다는 게 지방병무청 측의 설명이다.

또 특기병 또는 모집병과 달리 동반입대는 현역 판정을 받은 지원자라면 자적·면허·전공학과와 관련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경쟁률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군내 가족행위 등 입영 대상자의 심적 부담감이 늘면서 동반입대를 하려는 지원자가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반입대에도 재수생·삼수생이 속출하고 있다. 형제·친척·친구와 입대한 뒤 같은 부대에 배치돼 2년여 간 함께 군생활을 하는 동반입대를 하려면 수시내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1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전국 입영 기준으로 동반입대 경쟁률은 14대 1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동반입대 경쟁률 7대 1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동반입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일반병(정집) 입영 모집이 지난해부터 추첨식으로 바뀌면서 입대 시기가 불투명해진 반면 동반입대는 지원 서류 접수 이후 합격시

동반입대

지난 2003년 도입된 동반입대는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입대해 내무반 생활까지 같이 하게 함으로써 신세대의 장병들이 낯선 군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동반입대를 할 경우 배치지역이 1군(강원도)과 3군(경기도) 등 전방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같이 동반입대를 하려는 지원자들이 늘면서 최근 인터넷 군입대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엔 안면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께 동반 입대를 할 이를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음 카페 ‘이제형의 병역 상담소(cafe.daum.net/leeche)’의 경우 아예 동반입대 전용 게시판을 만들었다.

매일 10건 안팎의 글이 올라오며 신청 날짜가 임박하면 하루에도 수십명이 이곳에서 동반입대자를 찾는다.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상당수 대학생들이 입영 대기시간 문제로 시간적·물질 피해를 입는 점을 감안하면 병무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동반입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영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논의할 사안인데, 입영 대상자 모집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현역 대기 5000명 중 2800명 올해 입대

적체 해소위해 현역병 과체중·비만자 보충역 변경 검토

광주·전남 지역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가 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기준으로 입영 대기자 5만2000여명 중 광주·전남 지역 대기자는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입영

가능한 자를 28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0여 명은 사실상 올해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판단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입영 적체를 해소할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경우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연평균 21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

다. 국방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해 추가 입대 인원(5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300명을 올해 추가 입대시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현역병 대상 판정 기준을 올리기 위해 체질량지수(BMI) 하한선(16)을 17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 현역병 대상 7000~1만여 명이 보충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국방부 예상이지만 고의로 살을 찌우는 병역 기피자들을 양성할 가능성도 제기돼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화순지역 중·고생

‘독도는 우리 땅’

대규모 ‘플래시몹’

화순지역 중·고생들이 15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순읍에서 대규모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화순 이양중·고(교장 이명희), 화순중(교장 김철), 화순제일중(교장 김호중) 학생 7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화순읍 남산공원 자치센터 거리에서 사전에 약속한 대로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가락에 맞춰 똑같은 율동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양중·고 학생 80여명이 이양오일정에 맞춰 펼쳤던 독도 플래시몹이 유튜브 등에서 큰 관심을 모으자 참가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라는 의미를 담아 광복 70돌을 한 달 앞둔 날에 맞춰 진행됐다.

구항립 화순제일중 교사는 “학생들이 광복 70돌과 분단 70돌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 이양중·고, 화순중, 화순제일중 학생 700여명이 화순읍 남산공원 자치센터거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화순=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 해질 19:47 | 물결 05:36 | 물결 19:40

짬뽕더위 예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구름맑음 | 22/31 | 보성 | 구름맑음 | 20/29 |
| 목포 | 구름맑음 | 21/29 | 순천 | 구름맑음 | 22/30 |
| 여수 | 구름맑음 | 22/26 | 영광 | 구름맑음 | 21/30 |
| 나주 | 구름맑음 | 22/31 | 진도 | 구름맑음 | 20/28 |
| 완도 | 구름맑음 | 21/29 | 진주 | 맑음 | 21/31 |
| 구례 | 구름맑음 | 20/31 | 군산 | 맑음 | 22/29 |
| 강진 | 구름맑음 | 21/29 | 남원 | 맑음 | 20/30 |
| 해남 | 구름맑음 | 21/29 | 홍산도 | 구름맑음 | 20/25 |
| 장성 | 구름맑음 | 20/30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해 | 북동~동 | 0.5~1.0 | 북~북동 | 0.5~1.0 |
| | 남부 | 북동~동 | 1.0~2.0 | 북~북동 | 1.0~2.0 |
| 남해 | 남해 | 북동~동 | 1.0~2.0 | 북동~북 | 1.5~2.5 |
| | 서부 | 북동~동 | 1.5~2.5 | 북동~북 | 2.0~3.0 |
| 남해 | 남해(동) | 북동~동 | 1.5~2.5 | 북동~북 | 2.0~3.0 |
| | 남해(서) | 북동~동 | 1.5~2.5 | 북동~북 | 2.0~4.0 |

◇물때

| 목적 | 밀물 | | 썰물 | |
|----|-------|-------|-------|-------|
| | 시각 | 수치 | 시각 | 수치 |
| 여수 | 02:28 | 14:24 | 07:42 | 19:43 |
| | 09:13 | 21:44 | 03:10 | 15:12 |

◇주간 날씨

| 날짜 | 17(금) | 18(토) | 19(일) | 20(월) | 21(화) | 22(수) | 23(목) |
|----|-------|-------|-------|-------|-------|-------|-------|
| 날씨 | ☀ | ☀ | ☀ | ☁ | ☀ | ☀ | ☀ |
| 기온 | 20/29 | 22/31 | 22/31 | 23/31 | 23/30 | 23/30 | 23/30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운동 | 40 |
| 빨래 | 50 |

태풍 '남카' 복상... 광주·전남 영향 없을 듯

내일 부산 남서해상 접근

광주·전남지역은 현재 복상 중인 제 11호 태풍 '남카'(NANGK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남카'는 15일 오후 3시 현재 반경 350km의 강한 중형급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이르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830km 해상에서 태풍은 시속 21km의 속도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16일 오후께 제주 서귀포 남쪽 210km 해상까지 진출한 뒤, 17일께 부산 남서쪽 15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은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

초등학교 후배 위협

금품 빼앗은 10대 입건

광주광산경찰청은 15일 후배들을 위협,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광주 A중학교 3학년 최모(15)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군은 지난 2월 중순 오후 광주시 광

렸던 제9호 태풍 '찬홈'(CHAN-HOM)과 달리 광주·전남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내륙과 전남 남해안지역에 바람이 다소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박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12개다. 이는 평년 7.6개보다 4.4개 많은 수치다.

올해 태풍이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는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일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산구 소촌동 모아아파트 앞길에서 만난 오모(14)군에게 “문신할 돈이 필요하다”고 때릴 듯 위협, 현금 2만원을 빼앗

은 등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후배 12명을 대상으로 19만5000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최군은 현재 학교 부적을 학생으로 분류돼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보청기, 이렇게 구입하세요!!

- 효율적인 보청기 구입방법은?! -

맞춤렌탈

◀ 고가 보청기 부담적게 쓰세요!
▶ **한달 3~4만원**

◀ 다양한 서비스 무료: A/S, 배터리, 검사 및 관리

장기신용할부 (30개월)

예) 170만원 보청기+30개월
▶ **월56,666원**

본사 직영센터

◀ 본사 직영점
◀ 우수한 제품 취급 및 도난, 분실 파손 등 제품 사고시 보정

상품 1

맥스 프로 (7개년)
월 렌탈료 | 40,000원 (당월가비 | 340,000원)

상품 2

맥스 스탠드2 (6개년)
월 렌탈료 | 48,000원 (당월가비 | 280,000원)

상품 3

맥스 크리스프2 (7개년)
월 렌탈료 | 48,000원 (당월가비 | 280,000원)

무료 홈 서비스

◀ 전국 365일 지방 산골까지도 무료방문!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비싼 자녀분들을 위한 무료 홈 서비스!
◀ 매장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상담, 청력검사 및 맞춤 봉사.

☎ **1599-9040**

광주본점 | 062)430-8900 | 순천·여수본점 | 061)741-4880 | 전주본점 | 063)251-4999